

# 붙임.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6개 분야 선정 세부내역 및 심의총평

## ■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연극)

(단위 : 원)

연번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주)엠비제트컴퍼니	고강민	빵야	200,000,000
2	그린피그	이동영	엑스트라 연대기	160,000,000
3	극단 작은방	신재훈	건고딕-걸	85,000,000
4	극단놀땅	최진아	하얀 봄	150,000,000
5	연극집단 반	김지은	미궁(迷宮)의 설계자 (원제 : 509호실)	120,000,000
6	프로젝트집단 세사람	황정은	노스체(NOSCE)	85,000,000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창작뮤지컬)

(단위 : 원)

연번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주)컬처마인	김효중	다이스	180,000,000
2	섬으로 간 나비	윤상원	엘리스	190,000,000
3	시작프로덕션(주)	임선진	청춘소음	200,000,000
4	컴퍼니 일상,적	조형순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180,000,000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무용)

(단위 : 원)

연번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사)서울발레시어터	최진수	클라라 슈만 (Life is Love)	59,000,000
2	노네임소수	최영현	WHITE	56,700,000
3	댄댄스프로젝트	임정하	> "hello world" ;	54,600,000
4	모든 컴퍼니 (MODEUNCOMPANY)	김범호	On the Rock	59,000,000
5	시나브로 가슴에	권혁	태양	59,000,000
6	유정옥	유정옥	THE ROAD (더 로드)	52,700,000
7	화이트큐브프로젝트	정성태	불러오기;Recall	59,000,000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음악)

(단위 : 원)

연번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김재훈컴퍼니	김재훈	P.N.O	81,000,000
2	위로 앙상블(wiro ensemble)	강미나	음악극 어귀야	46,900,000
3	하늬바람	김한아	창작 실내악 음악극 봉(鵬)새의 꿈	41,900,000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창작오페라)

(단위 : 원)

연번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김영석	피싱	135,000,000
2	그랜드오페라단	강신영	피가로의 이혼	76,800,000
3	오페라팩토리	박경태	양철지붕	149,800,000
4	현대성악앙상블	이병렬	사막 속의 흰 개미	130,000,000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전통예술)

(단위 : 원)

연번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공간서리서리	송경근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울기	60,000,000
2	연희공방 음마갱갱	음대진	절 대목(大木)	60,000,000
3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박인혜	<박인혜 쫓스토리-모파상 篇>	60,000,000
4	홍성현 아트 컴퍼니	홍성현	RE: Originality [RE: 오리지널리티]	23,000,000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 2022년도 올해의신작(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 26일(토) 10:00~19:00
- 회의장소 : 대학로 CJ아지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소연, 민세롬, 이성열, 이승현, 이시우, 엄현희, 유인수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3차 실연심의회는 1,2차 심의에서 선정된 11개의 작품이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참가하신 창작자와 관계자분들 그리고 관객평가단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인의 전담심의회원은 최종적으로 6개 작품(중극장 3작품, 소극장 3작품)을 선정하고, 80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실연심의회는 CJ아지트에서 한 작품 당 60분이라는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 작품의 규모(중극장 소극장), 작품의 스타일(매체 활용 등) 등의 특징을 모두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의회원들은 실연과 함께 제출한 공연계획서(무대, 조명, 의상, 사운드 등의 디자인 계획서), 실연 후 창작자 인터뷰 등을 참고하여 각 작품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작품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피고자 했습니다.

3차 실연심의회는 작품성(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20%), 관객평가(20%)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2차 심의와 비교하면 ‘작품성’ 과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항목과 비중은 동일하나 ‘실행역량의 우수성’ 비중을 낮추고 ‘기대효과’ 기준이 없는 대신 관객평가단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객평가단 평가는 관객 개별 평가를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실연심의회는 앞선 1, 2차 심의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연심의회에 참여한 11개 단체들은, 1, 2차 심의를 거처온 만큼 모두 개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2차 심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가능성을 드러내는 작품이 있었는가 하면, 장점과 미진함이 더 뚜렷이 드러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에 실연심의회에서는 공지된 심의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해서 살폈습니다. 작품의 단점 혹은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있는가, 작품의 시공간에 대한 해석과 구현을 통해 무대화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배우와 연출은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가, 본공연으로 제작되었을 때 작품의 미덕이 확장될 수 있는가 등을 주목했습니다.

실연 후 토론과정에서는 개별 작품을 검토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신작을 발굴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동시대성’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재난 등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가, 인

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삶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가, 존엄한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예민하게 발굴하고 탐구하고 있는가, 이야기의 구성과 캐릭터의 설정에서 독특함과 참신함을 보여주는가, 본공연으로 제작되어 관객들을 만날 때 연극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여러 기준과 가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동시대성’ ‘작품성’ 등은 창작활동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기준이지만 단일한 척도인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들도 창작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가치의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객으로서 작품을 대할 때 하나의 척도로 이해하거나 향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면서 여러 가치들을 교차시켜 개별 작품들을 검토했습니다.

실연 심의에 참여한 모든 작품들이 장점과 미진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선정작을 확정하기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된 심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여러 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심의위원들이 더 다양한 가치를 발견한 작품들로 선정작을 좁혀갔습니다.

소재의 다양성, 새로운 세대에 대한 주목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창작산실의 취지에 비추어 앞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개개인이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해 더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지원금 총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선정작 편 수가 늘어날 경우 각 단체의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창작산실은 민간단체의 신작 제작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지원한다는 이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한 지원단체의 예산 계획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주목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간단체의 제작역량을 지원하고 관객들이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 사업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여러 심의위원들이 함께 토론한 여러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낸 작품들입니다. 선정작이 완성된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날 때 그 성과를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올 수도 있고 가능성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해당 작품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창작산실 본연의 목표라 할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실연심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실연심의를 두는 것은 작품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자 제작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제한조건은 실연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작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창작자 창작단체가 자신의 작업의 가능성을 좀 더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한 좀 더 합의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실연심의회는 오미크론 감염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 과정에서 피치 못할 감염으로 실연심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리허설 영상 심의도 열어두었습니다. 다행히 영상심의 단체는 없었지만, 리허설 과정에서 캐스팅이 교체되거나 인터뷰에 원격영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팬데믹의 불안정한 창작환경에서 비롯된 만큼 심의에서는 창작자, 창작단체가 구현하는 바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실연 심의에 참여해주신 단체들, 실연심의회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 3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쳐 본공연에 오르는 최종 선정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선정작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 참여해준 많은 창작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도와 고민이 관객 여러분과 만나길 기대합니다.

선정단체들은 여러분의 시도와 고민이 동료 연극인, 관객들에 가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 ■ 2022년도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3월 14일(월) ~ 17일(목) 10:00~19:00
- 회의장소 : 대학로 CJ아지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병원, 김가람, 김은영, 박현숙, 오준석, 조형준, 최경화

우선 어려운 시기에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 심의에 참가하신 창작자, 관계자분들 그리고 관객평가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의에서 선정된 10개 단체의 3차 실연심의(작품 당 80분)는 연이은 코로나 시국에도 최선을 다해 진행 되었습니다. 창작뮤지컬 분야 최종 심의는 작품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20%), 관객평가단(20%)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4개의 작품(소극장 3작품, 중대극장 1작품)을 선정했고, 총 750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 다양성을 핵심으로 두어 선발한 만큼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가진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만듦새도 훌륭하였습니다.

작품의 소재에 있어서는 ‘원작의 재창작’, ‘판타지’, ‘역사’, ‘일상’의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작이 있는 작품은 동시대의 맥락에 맞게 재창작되었는지를 집중하여 보았고, 판타지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치밀한 접근과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한 사건의 소개를 넘어 얼마나 확장성을 갖는지를 염두 했고, 일상을 다룬 작품들은 동시대적인 공감을 담고 있는지를 보

왔습니다. 몇 작품들에서는 기시감이 드는 소재를 선정한 것이 아쉬웠고, 시대 감수성이 부족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동시대성을 담은 신선한 소재에 대한 갈망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많은 작품에서 ‘악인’ 캐릭터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현상이 현시대와 어떤 흐름적 맥락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음악에 있어 작곡가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쇼케이스였습니다. 다양한 음악 스타일은 물론 완성도가 높아 창작뮤지컬 작곡가들의 무서운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송 모먼트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개별 곡은 좋으나 전체적인 구조에서 같은 유형과 템포의 음악들이 반복되는 작품들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극장 규모를 생각하고 작곡되지 않은 작품들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작품의 첫 단계부터 기획적인 것들이 창작진 내부에서도 정리가 된다면 작품의 발전 가능성이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3차 실연심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의한 점은 ‘시장성’이었습니다. 다양한 관객의 유입을 염두에 둔 작품들이 많은 점은 크게 주목할만하였습니다. 다만, 다양성을 가진 작품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작품인 것일까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작사가 창작자와 작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시장에 대한 논의를 얼마나 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극장의 규모에 대한 선 고려 후 음악과 작품의 창작 방향성이 잡히는 것이 본 공연이 올라간 후 작품을 레퍼토리화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 생각했고, 극장의 사이즈가 고려되어 창작된 작품들이 결국 기획적 성공으로 이어지리라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불어, 초기에 타깃 관객층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도 작품의 흥련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으며, 각자의 색채가 뚜렷한 열 개의 작품들이 모두 매력을 갖고 있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 선정작은 시장성, 다양성, 완성도, 레퍼토리화의 가능성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작품적 완성도’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심의위원과 관객평가단의 평가 점수가 일치하였는데, 결국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오게 하는 것은 좋은 작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심의였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완성도 높은 본 공연으로 만날 수 있기를,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도 보완 후 꼭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22년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분야 심의위원 일동

## ■ 2022년도 올해의신작(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4월 1일(금) ~ 3일(일) 10:30~19:00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지영, 김혜라, 안성수, 이인숙, 장지영, 정혜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현장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동시대의 창작공연이 제작되도록 지원하며 우수한 창작 작품의 발굴과 성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참가하신 무용가와 스태프들 그리고 관객평가단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의에서 선정된 11단체의 3차 실연심의를 연이은 코로나 시국에도 최선을 다해 진행(영상 실연 1팀)되었습니다. 6인의 전담심의위원은 지원자들의 실연심의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실연심의를 제한적 상황으로 인해 보지 못한 부분들은 제출된 포트폴리오를 심의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7개 팀(대극장 6팀, 소극장 1팀)을 선정했고, 총 400백만원의 예산은 작품 규모 및 소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2022년도 <올해의 신작> 실연 심의는 6명의 전문가(안무, 평론, 기획) 심의위원이 20분의 쇼케이스를 관람 후 인터뷰 15분 시간동안 면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의 기준은 ①작품의 예술적 우수성(작품성)에 50%, ②본 공연으로의 확장 실행역량에 20%, ③예산 규모와 운영여부에 10% 그리고 ④관객평가단의 평가에 20%를 부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원서 내용과 부합되는 쇼케이스 인지에 주력하며 살피었고 앞으로 신작으로써의 가능성에 보다 평가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했습니다.

올 해 지원자들의 창작경향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드러내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자연 환경과 개인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움직임이 창작의 메소드(method)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서커스의 도구(장치)와 아크로바틱(acrobatic)한 결합, 스포츠의 운동성과 춤의 키네틱(Kinetic)한 요소의 접점연구, 영상미디어와 감각(시각,청각,후각)적 융합 등입니다.

전문가 6인의 심의위원들의 심의평 및 건의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해 신작에 선정된 단체들의 강점은 ▲동시대적 사유에 적합한 다양한 무브먼트(움직임) 개발에 주력한 점, ▲타 장르와 적극적인 융합으로 공연예술로서의 춤 언어 확장 가능성을 시도한 점 그리고 ▲지원서와 PPT발표 및 예산 및 창작과정 작성이 세밀하게 작성된 점입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20분의 쇼케이스가 전체 내용에서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아 본 공연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다양한 움직임 모색과 도구 활용 자체에만 머문 채 안무적 혹은 내용적 의미 맥락으로 숙성되지 못한 점 그리고 ▲창작자 의식에 있는 고민이 객관적인 언어로 관객에게 전달될 것까지 치밀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입니다.

본 공연에 최종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심의위원의 공통된 당부는 쇼케이스 와는 달리 1시간여의 완성된 작품이 되기까지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전체 작품의 주제적 의미와 맥락 연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 작품이 완결되기까지 여러 경로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작품의 **객관적인 설득력**을 높이지길 제안합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지원 사업이 무용가들에게 창작의식을 진작시키고, 완결된 작품으로 관객과 함께 공유하며 어려운 시기를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인터뷰에서 나눈 질문과 답을 상기하며 작업을 진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기대되는 신작이 탄생되길 바라며 건투를 빕니다. 지속되는 팬데믹 시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올해의신작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

## ■ 2022년도 올해의신작(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음악 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4월 7일(목) ~ 8일(금)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문선, 박진학, 손창우, 이승목, 최태규, 한경진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에 처음 신설된 음악 분야는 예술 현장의 창작자와 예술가를 지원함으로, 더욱 창의적이고 현시대적인 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국내외 다양한 관객들에게 새롭고 우수한 음악 콘텐츠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실연심의를 올해 첫 신설된 음악 분야인 만큼, 음악 분야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시대성을 반영한 창작물의 작품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에서 선정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실연심의를 기준은 올해의신작인 만큼 작품성(50%)에 가장 큰 배점을 두었고, 실행역량의 우수성(2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쇼케이스 준비와 더불어 추가 제출한 자료인 작품 포트폴리오도 중요한 심의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건(작품당 20분 실연)에서 무대에 올려진 다섯 작품들을 심의위원 6인이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연심의에는 사전 지원으로 선정된 현장 관객들의 평가(20%)가 합산되어 일반관객들의 눈높이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인의 전담심의위원은 최종적으로 3개 작품(중대극장 1개 작품, 소극장 2개 작품)을 선정하고, 169.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올해 음악 분야 실연심의 후보작들의 특징은 음악극 형식을 띤 작품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전달력으로 보았을 때 음악극은 효과적인 형식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제약으로

인해 독창성을 살리기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 올려진 다섯 팀의 무대를 통해 각 단체들의 노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첫 신설된 음악 분야의 첫 사업이기에,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심의위원들은 더욱 긴 시간의 토론과 고민을 거쳐 올해의신작 최종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심의를 통해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에 최종 선정 작품은 위로 앙상블의 <여과야>, 하늬바람의 <봉새의 꿈>, 김재훈 컴퍼니의 <P.N.O>입니다. 올해 후보로 선정된 다섯 팀 모두 짧은 기간 동안 훌륭하게 준비를 하였으나, 작품의 창의성, 음악적 완성도, 음악의 전달력, 사업의 성공적 수행 능력, 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세 개의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예술 현장의 현실을 고려, 각 사업의 필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최종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 단체들을 지원하는 목적 중 하나인 예술가들의 지원에 부합하도록 향후 본 공연 제작 시에 예술가들에게 적정 연주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의 잔여 예산은 올해의신작 타 분야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음악 분야의 첫 심의였기에, 고민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창작가와 예술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2년차, 5년차를 지나며 음악 분야에 더욱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이 배출되어 국내외 관객들에게 멋진 공연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음악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올해의신작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

## ■ 2022년도 올해의신작(창작오페라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 14일(목)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 심의위원(가나다순) : 서창규, 송갑석, 이나리메, 임주섭, 최원중, 최주환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에서는 총 7편의 실연심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창작오페라발굴지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올해의신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그간 실연심의회에서 아쉽게 탈락한 우수한 작품들도 다시 지원 대상이 되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욱 완성도 높은 쇼케이스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쇼케이스를 진행한 7개 작품은 모두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스토리 측면에서도 동시대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었고 스토리의 확장성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쇼케이스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사업을 신청한 오페라단이 쇼케이스 공연을 넘어 본 공연까지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창작진들이 오페라단을 믿고 자신들의 창작 역량을 극대화하여 펼쳐 보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쇼케이스 심의에서는 오페라단과 작곡가, 작가, 연출가가 서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는가가 중요한 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쇼케이스 심의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작품성(50%), 실행역량의 우수성(2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을 평가하였으며, 관객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하였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7개 작품은 모두 완성도 높고 발전한 쇼케이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오페라가 아닌 현대적인 오페라를 시도하고자 했던 단체들의 역량 또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쇼케이스 공연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음악적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작곡가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품들은 음악적인 밀도를 높이고 오케스트레이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페라 음악의 완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개 작품 모두 개성이 넘치는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중에 오페라단과 작곡가, 작가, 연출가가 서로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된 작품을 선정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인의 전담심의위원은 최종적으로 4개 작품(중대극장 규모 4개 작품)을 선정하고, 169.8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본 공연으로 올려졌을 때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의 <피싱>, 그랜드오페라단의 <피가로의 이혼>, 오페라팩토리의 <양철지붕>, 현대성악앙상블의 <사막 속의 흰 개미>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에게서 동시대적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들은 오페라가 21세기 동시대의 예술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진지한 노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의 축적은 분명 한국적 오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은 텍스트, 곧 대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음악과 연출이 뛰어나다고 해도 전체적인 완성도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의 구성이 탄탄하다고 해도 가사의 전달이 어려울 경우 이 또한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작품에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된 작품에는 더욱 좋은 작품으로 발전시켜 관객에게 오페라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분야 심의위원 일동

## ■ 2022년도 올해의신작(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4월 20일(수) ~ 21일(목)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민, 박인수, 원일, 윤중강, 이영신, 장재효, 주재연

먼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애쓴 많은 전통예술인에게 진정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대에 작품을 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 심의라는 것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님을 실연심의를 임하는 단체들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연단체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과는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의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실연심의에서는 지난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심의에서 선정된 7작품이 모두 동일한 조건(실연 20분)으로 무대를 올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포트폴리오 등 단체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심의기준인 작품성(50%), 우수성(2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관객평가단 점수(20%)가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4개 작품(소극장 4개 작품), 203백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올해의신작은 ‘미래의 전통’ 이 되어야 한다!” 창작산실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도 점차 이런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에 거는 기대가 분명하며, 참가단체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심의를 할 때에도 중간 단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작품의 과정’ 으로서의 심의를 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2022년 올해의신작은 예년에 비해 월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분명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만나서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년의 이런 단계에 비해, 이번에는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이 심의위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작품의 ‘앞으로의 가능성’ 에 초점을 추었고, 도전정신이나 새로운 시도에 더욱 비중을 두면서 심의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초연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더욱 고려하면서,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미래의 전통’ 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는데 더욱 신중히 심의에 임했습니다. “이 작품이 앞으로 전통예술분야에 어떻게 넓고 깊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이번 심의에서는 매우 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실연심의회에 오른 7작품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전통예술의 새로운 향방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시각에서 본 심의회위원들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선정 여부에 관련 없이, 전통예술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의 발견’을 통해서 ‘미래의 전통’에 보다 초점을 맞춘 작품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참여 단체들의 작품에서 타 장르와의 결합이라거나, 무대적 기술을 잘 보여주려고 한 노력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작품에서 때론 상대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인 ‘전통’의 요소가 그다지 새롭게 못하거나, 너무 간과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쉽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몰랐고, 우리의 전통음악계가 잘 몰랐던 전통의 요소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둘째, 공연을 가능케 하는 제반 요소가 보다 더 ‘유기적인 결합’을 지향하길 희망합니다.

최근 전통음악계가 기술적인 면과 기교적인 면에서는 무척 발전하였습니다. 연주가들이 모두 우수한 기량을 보이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무대를 새롭게 세련되게 만드는 방식을 체득하면서, 비주얼적인 면에서 성장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의 여러 요소가 잘 결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을 완성시키는 여러 요소가 물리적으로 잘 결합되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새로운 공연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 결합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냈는가?”, “공연의 여러 요소가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공연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늘 점검에 또 점검을 한다면,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되리라고 믿습니다.

셋째, 서사 구조 속에서도, 전통예술의 존재가치를 분명히 해 주길 희망합니다.

요즘 서사를 강조하는 작품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좋은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전통예술’의 본질적인 미감(아름다움, 가치)과 전통예술을 전통예술로 존재하게 하는 필연적인 매체(악기)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고구(考究)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본질에 해당하는 악기적 특성은 물론이요, 전통예술의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서사(스토리텔링)’와 ‘공연(전통예술)’이 함께 하는 작품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야기가 빈약한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이야기에 치중해서 전통예술이라는 매체(미디어)가 간과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존재를 지탱해왔던 본질적인 요소, 그 유형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무대라는 공간속에서 상생(相生)해 주길 희망합니다.

넷째, 심의위원의 입장에서 특히 생각했던 것은 ‘동시대적 교감’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인 당대의 화제성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대성이라 함은, 이 시대의 전통예술의 존재가치를 알려주면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올해의 참가작은 매우 다행스럽게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튼튼했고, 대체로 작품이 완성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면서도, 기존의 전통예술과 또한 어떤 차별성 곧 변별력이 있는가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며 특히 ‘전통의 실제적 가치’와 ‘전통의 미래적 취향’이 보다 더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했으며, 대한민국의 보편적 다수에게 ‘전통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앞으로 이 작품이 세계의 공연예술시장에 나아가서 얼마만큼 독창적인 매력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전통예술을 알릴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다각도로 심의를 임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작품이 앞으로 전통예술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한국과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면서 문화적 화두를 던지면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에게 예술적 충족감을 주는 작품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

2022년 올해의신작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